

오늘은 먼저 작년 3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를 갖고 서사문학(소설, 극) 지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사문학은 대부분의 국어영역 선생님들께서 강조하는 공통적인 지문해석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건정리입니다.

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문에 나오는 인물에 밑줄을 치고, 그들의 대화와 행동, 서술 등을 통해 관계와 사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서사문학 지문해석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정리를 한다.
2. 사건은 하나의 지문에서 2~3개가 나온다.
3. 각 사건은 연관성을 갖는다.
4. 서사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유형은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5. 지문의 주제, 혹은 사건의 의미를 파악한다.
6. 서사문학의 문제 유형에 따른 파해법을 숙지, 연습한다.
(특히 서술방식의 특성 문제)

4,5,6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훈련입니다. 이는 차차 저의 칼럼을 통해 하도록 합니다.

- 먼저 문제를 푸시오. 오답률 53%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옛날 어느 가난한 집안에 자식을 많이 둔 어머니가 죽을 끓이다 못만 남긴 채 행방불명이 된다.

만형 우리들이 가 버리면 여기 남은 형제자매 그 누가 보살펴 주겠소?

노파·남자3 그건 염려 말아. 우리가 정성껏 보살펴 주겠네.

둘째 우린 몰라 못 가겠소.

노파·남자3 몰라 못 간다니.....

둘째 우리 모친 어느 곳에 계시는지 몰라 못 가겠소.

노파·남자3 살았으면 이승 있겠고 죽었으면 저승 있겠지.

막내 우린 당장 떠나겠소. 떠날 때가 분명하듯 돌아올 때 분명하게 기약이나 정합시다. 십 년 기약 어떻겠소?

노파·남자3 (치마에 모은 노잣돈을 막내에게 준다.) 십 년 기약 그제 좋군! 자네들이 그때까지 꼭 찾아서 데려오게.

만형 막내 네가 바보구나! 노잣돈을 받았으니 안 떠날 수 있겠느냐!

둘째 (만형을 붙잡고 탄식하며) 차마 못갈 이승 길을, 몰라 못갈 저승길을 물어물며 가야겠네!

막내 (일곱 자식들에게 작별인사를 한다.) 몸 성히들 잘 계시오. 우리 어머니 꼭 찾아서 모셔올 테요.

만누나 장하구나, 우리 막내! 십 년 기한 차기 전에 꼭 찾아서 모셔 오나라!

(열 자식들이 세 자식들과 일곱 자식들로 나뉘어 이별한다. 만형, 둘째, 막내는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구경꾼들도 퇴장한다. 일곱 자식들은 무대 후면으로 물러간다. 만누나는 무대 가운데서 세 자식들이 나간 방향을 향하여 손을 흔든다. 이별의 서러움이 역력한 모습이다. 만누나, 입었던 누더기 옷을 벗어 관객석 쪽으로 다가와서 말한다.)

만누나 나는 자꾸만 손을 흔들었어요. 큰오빠, 작은오빠, 막내가 멀리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건 옛날 이야기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체험이기도 하죠. 가난한 어린 시절, 나의 슬픈 기억 속에는, 가족과의 이별이 있어요. 노오란 먼지가 바람에 휘날리던 황토길, 그 바짝바짝 메마른 황토길을 오빠들이 떠나가면서 나한테 말했어요.

만형 울지 말고 십 년만 기다려라! 그럼 성공해서 돌아올게!

만누나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틈을 노려서, 도망치듯이 몰래 집을 떠나가는 오빠들..... 난 훌쩍훌쩍 울면서 손목이 떨어져라 떨어져라 흔들었죠. (누더기 옷을 다시 입고 무대 가운데로 가서 세 자식들이 떠나간 방향을 향하여 외친다.) 가는 듯이 돌아올 오소! 기다리는 마음, 미치고 달치겠네!

(중략)

만형 여기가 세 갈래 길이구나. 그동안엔 우리 함께 다녔으나, 지금부터 제각기 길을 택해 가기로 하자.

둘째 (표지판을 소리 내어 읽는다.) 서울로 가는 길, 바다로 가는 길, 산으로 가는 길..... 형님은 어느 길로 가시려오?

만형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을 다 해봤지만, 우리 어머니는 도망간 게 여실하다. 열 명 자식 키우느라 그 고생이 막심한데 평생 수절하기 또 얼마나 힘들었겠니? 답답한

맘 풀어보려 서울 구경 갔을 테니, 난 이쪽 서울로 가는 길을 택하겠다.

둘째 나도 별의별 생각 다 했소만,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는 죽은 것 같소. 혹시나 바다에는 용궁 있어 저승과 통한다 하니, 나는 바다로 가는 길을 택할 테요.

만형 막내 너는 어쩔 거냐?

막내 나도 여러 생각 다 했소만, 우리 어머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소. 나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승도 살펴보고 저승도 살펴볼 테요.

만형 네 생각이 그리하면 저쪽 산으로 가는 길이 네 길이다. 이제 각자 길로 가기 전에 노잣돈을 나눠 갖자. (노잣돈을 삼등분으로 나눈 다음, 자기 몫에서 조금 덜어 막내에게 준다.) 막내야, 너는 어리니 노잣돈을 더 가져라.

막내 아니요, 형님. (자기 몫에서 덜어내 만형과 둘째에게 준다.) 나는 젊으니 형님들이 더 가지시오.

둘째 (만형과 막내에게 자기 몫을 덜어주며) 형님도 더 가지시고, 막내도 더 가져라.

만형 우애 깊은 우리 형제, 여기에서 헤어지다니..... 십 년 기한 잊지 말고 다시 만나자!

둘째 형님이나 잊지 마요! 막내야, 너도 잊지 마라!

만형 (길을 나눠 떠나는 둘째와 막내에게 손을 흔들어 전송하며, 목이 뻔 소리로) 너희들, 어머니를 꼭 찾아 모셔 오나라!

(만형, 관객석으로 다가와서 입고 있던 옷을 벗는다.)

만형 어머니를 찾다니, 그게 뭐니까? 사람이란 그 누구나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는 옛날과는 다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권력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으며, 예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내가 찾는 어머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내 꿈은 화가였습니다. 오색 물감으로 하늘의 태양과 구름, 땅의 언덕과 나무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었지요. 그런데 중학교 땐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질병이 아니라 수많은 질병들을 거느리는 장군이었어요. 고등학생 시절엔 장군보다는 정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행정학을 전공했었는데, 졸업할 무렵 그 모든 것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예술가가 되려는 욕구, 군인이 되려는 욕구, 정치가가 되려는 욕구가 같이 있었습디만..... 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다시 옷을 입으며) 어머니를 찾기는 찾아야 할 텐데..... (이정표에다가 가서 방향판을 바라본다.) 서울로 가는 길, 길에 내 운명을 맡기고 떠나보자!

- 이강백 원작·김아라 연출, 「동지선달 꽃 본 듯이」 -

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에서 무대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무대		관객석
A	B	C

A에서는 ‘옛날 이야기’가, B에서는 현재의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① A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의 일부가 B에서 언급되면서 두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
- ② 등장인물들이 ‘옷’을 입고 벗음은 A와 B의 상호 전환을 알리는 장치이다.
- ③ B에서 등장인물들은 C의 관객들과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말하는 위치를 바꾸고 있다.
- ④ C의 관객들은 A와 B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종합하여 극의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 ⑤ B에서는 A에서와는 다른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C의 관객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다.

☞ 이 문제가 이번 모의고사에서 A,B형 모두, 오답률 1위였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문에 있습니다. 이 희곡은 현행 14종 문학교과서 중에 미래엔 교과서 1권에만 수록된 작품입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이 작품을 미리 접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쓰여 내용조차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지문 해석이 학생 입장에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또한 A형에서는 44번이었던 이 문제는 문제풀이까지 난해해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먼저 지문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사문학에서 가장 흔히 쓰는 분석법을 활용합니다. 바로 인물중심의 사건정리입니다. 상징적인 의미해석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 지문의 표면적인 사건정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고, 삼형제가 어머니를 찾으러 갑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의미는 지문 끝부분에 만형이 잘 이야기합니다. 이 만형이 이야기하는 대사가 이 지문 해석의 본질인 어머니의 의미를 파악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극에서 쓰이는 중요한 상징적인 장치인 옷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이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은 이 지문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합니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옛날 어느 가난한 집안에 자식을 많이 둔 어머니가 죽을 끓이다 못만 남긴 채 행방불명이 된다.

만형 우리들이 가 버리면 여기 남은 형제자매 그 누가 보살펴 주겠소?

노파·남자3 그건 염려 말아. 우리가 정성껏 보살펴 주겠네.

둘째 우린 몰라 못 가겠소.

노파·남자3 몰라 못 간다니.....

둘째 우리 모친 어느 곳에 계시는지 몰라 못 가겠소.

노파·남자3 살았으면 이승 있겠고 죽었으면 저승 있겠지.

막내 우린 당장 떠나겠소. 떠날 때가 분명하듯 돌아올 때 분명 하게 기약이나 정합시다. 십 년 기약 어떻겠소?

노파·남자3 (치마에 모은 노잣돈을 막내에게 준다.) 십 년 기약 그제 좋군! 자네들이 그때까지 꼭 찾아서 데려오게.

만형 막내 네가 바보구나! 노잣돈을 받았으니 안 떠날 수 있겠느냐!

둘째 (만형을 붙잡고 탄식하며) 차마 못갈 이승 길을, 몰라 못갈 저승길을 울며불며 가야겠네!

막내 (일곱 자식들에게 작별인사를 한다.) 몸 성히들 잘 계시오. 우리 어머니 꼭 찾아서 모셔올 테요.

만누나 장하구나, 우리 막내! 십 년 기한 자기 전에 꼭 찾아서 모셔 오너라!

(열 자식들이 세 자식들과 일곱 자식들로 나뉘어 이별한다. 만형, 둘째, 막내는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구경꾼들도 퇴장한다. 일곱 자식들은 무대 후면으로 물러간다. 만누나는 무대 가운데서 세 자식들이 나간 방향을 향하여 손을 흔든다. 이별의 서러움이 역력한 모습이다. 만누나, 입었던 **누더기 옷을 벗어** 관객석 쪽으로 다가와서 말한다.)

만누나 나는 자꾸만 손을 흔들었어요. 큰오빠, 작은오빠, 막내가 멀리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건 **옛날 이야기**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체험이기도 하죠**. 가난한 어린 시절, 나의 슬픈 기억 속에는, 가족과의 이별이 있어요. 노오란 먼지가 바람에 휘날리던 황톳길, 그 바짝바짝 메마른 황톳길을 오빠들이 떠나가면서 나한테 말했어요.

만형 울지 말고 십 년만 기다려라! 그럼 **성공해서 돌아올게!**

만누나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틈을 노려서, 도망치듯이 몰래 집을 떠나가는 오빠들..... 난 훌쩍훌쩍 울면서 손목이 떨어져라 떨어져라 흔들었죠. (**누더기 옷을 다시 입고** 무대 가운데로 가서 세 자식들이 떠나간 방향을 향하여 외친다.) 가는 듯이 돌아올 오소! 기다리는 마음, 미치고 달치겠네!

(중략)

만형 여기가 세 갈래 길이구나. 그동안엔 우리 함께 다녔으나, 지금부터 제각기 길을 택해 가기로 하자.

둘째 (표지판을 소리 내어 읽는다.) 서울로 가는 길, 바다로 가는 길, 산으로 가는 길..... 형님은 어느 길로 가시려요?

만형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을 다 해봤지만, 우리 어머니는 도망간 게 여실하다. 열 명 자식 키우느라 그 고생이 막심한데 평생 수절하기 또 얼마나 힘들었겠니? 답답한 맘 풀어보려 서울 구경 갔을 테니, 난 이쪽 서울로 가는

길을 택하겠다.

둘째 나도 별의별 생각 다 했소만,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는 죽은 것 같소. 혹시나 바다에는 용궁 있어 저승과 통한다 하니, 나는 바다로 가는 길을 택할 테요.

만형 막내 너는 어쩔 거냐?

막내 나도 여러 생각 다 했소만, 우리 어머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소. 나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승도 살펴보고 저승도 살펴볼 테요.

만형 네 생각이 그리하면 저쪽 산으로 가는 길이 네 길이다. 이제 각자 길로 가기 전에 노잣돈을 나눠 갖자. (노잣돈을 삼등분으로 나눈 다음, 자기 몫에서 조금 덜어 막내에게 준다.) 막내야, 너는 어리니 노잣돈을 더 가져라.

막내 아니요, 형님. (자기 몫에서 덜어내 만형과 둘째에게 준다.) 나는 젊으니 형님들이 더 가지시오.

둘째 (만형과 막내에게 자기 몫을 덜어주며) 형님도 더 가지시고, 막내도 더 가져라.

만형 우애 깊은 우리 형제, 여기에서 헤어지다니..... 십 년 기한 잊지 말고 다시 만나자!

둘째 형님이나 잊지 마요! 막내야, 너도 잊지 마라!

만형 (길을 나눠 떠나는 둘째와 막내에게 손을 흔들어 전송하며, 목이 뻥 소리) 너희들, 어머니를 꼭 찾아 모셔 오너라!

(만형, 관객석으로 다가와서 입고 있던 **옷을 벗는다.**)

만형 어머니를 찾다니, 그게 뭐니까? 사람이란 그 누구나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잊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어른이 되어서 찾은 어머니는 옛날과는 다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권력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으며, 예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내가 찾은 어머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내 **꿈**은 화가였습니다. 오색 물감으로 하늘의 태양과 구름, 땅의 언덕과 나무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었지요. 그런데 중학교 땐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졸병이 아니라 수많은 졸병들을 거느리는 장군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엔 장군보다는 정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행정학을 전공했었는데**, 졸업할 무렵 그 모든 것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예술가가 되려는 욕구, 군인이 되려는 욕구, 정치가가 되려는 욕구가 같이 있었습디다만..... 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다시 **옷을 입으며**) 어머니를 찾기는 찾아야 할 텐데..... (이정표에다가가서 방향판을 바라본다.) 서울로 가는 길, 길에 내 운명을 맡기고 떠나보자!

- 이강백 원작·김아라 연출, 「동지선달 꽃 본 듯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옷을 벗고 입을 것의 역할은 극 중 내용과 별개의 상황을 나타낸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찾으러 떠나는데 오빠가 성공하기 위해 떠난다는 말, 옛날이 극 중 시간인데 대학 졸업이 나오는 것, 현재 자신이 배우라는 말 - 극 중 현실이 아닌 현재 연기를 하는 배우 자신의 이야기임을 나타냄)

아하, 그래서 옷이라는 소재를 활용한 것이군요. 이 극의 작가는 우리 곁에 입을 옷을 통해 현실 속의 배우의 삶을 감추고 극 중 배역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우가 평상복에서 무대의상으로 갈아 입으면 실제 삶과는 다른 극 중 삶을 표현하게 되니까요. 그럼 작가는 왜 연극에서 현실 배우의 삶까지 드러내면서 이중적인 상황을 설정한 걸까요? 그것은 이 극의 성격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내신 수업이나 문학기본 수업을 통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극은 서사극 - 극의 물입을 방해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극에서 제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 극의 배우처럼 관객 각자의 실제 삶에 적용하여 이해하라는 의도입니다.

또한 어머니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꿈, 욕구 등의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극에서 어머니의 의미는 인간의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옷을 남기고 사라졌기 때문에 피상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문제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음.)

결국 이 작품은 인간의 본질적인 추구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지문에 소재에 관한 내용을 따로 표시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 봅시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무대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무대		관객석
A	B	C

A에서는 '옛날 이야기'가, B에서는 현재의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① A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의 일부가 B에서 언급되면서 두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
- ② 등장인물들이 '옷'을 입고 벗음은 A와 B의 **상호 전환**을 알리는 장치이다.
- ③ B에서 등장인물들은 C의 관객들과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말하는 위치를 바꾸고 있다.
- ④ C의 관객들은 A와 B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종합하여 극의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 ⑤ B에서는 A에서와는 다른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C의 관객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다.

일단 이 문제는 말바꾸기(같은 뜻 다른 표현)로 일부러 해석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에 표시된 단어를 쉽게 바꾸어 보겠습니다.

물리적 - 공간적 : 장소가 동일

교차적 - 번갈아 나옴

상호 전환 - 설정, 상황이 서로 바뀜. A에서 B로, B에서 A로

심리적 거리 - 친근함. (직접 이야기를 전달.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이렇게 바꾸면 어느 정도 보기의 내용과 선지의 내용이 이해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동의이형(同意異形)'의 **원리**는 학생들에게 국어영역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아주 단순하고, 자주 나오는 출제 방법**입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우리나라 말을 다 알고 있으니 이런 경우 위와 같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어** 문제를 해석하십시오.

문제 당 : 3번

지문해석과 문제가 올바르게 이해되었다면 이제 내용연결의 원리에 따라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별첨 파일 단순문 참조.**

왜냐하면

만누나 장하구나, 우리 막내! 십 년 기한 차기 전에 꼭 찾아서 모셔 오너라!

(열 자식들이 세 자식들과 일곱 자식들로 나뉘어 이별한다. 만형, 둘째, 막내는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구경꾼들도 퇴장한다. 일곱 자식들은 무대 후면으로 물러간다. 만누나는 **무대 가운데서** 세 자식들이 나간 방향을 향하여 손을 흔든다. 이별의 서러움이 역력한 모습이다. 만누나, 입었던 **누더기 옷을 벗어 관객석 쪽으로 다가와서 말한다.**)

만누나 나는 자꾸만 손을 흔들었어요. 큰오빠, 작은오빠, 막내가 멀리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건 **옛날 이야기**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체험이기도 하죠. 가난한 어린 시절, 나의 슬픈 기억 속에는, 가족과의 이별이 있어요. 노오란 먼지가 바람에 휘날리던 황톳길, 그 바짝바짝 메마른 황톳길을 오빠들이 떠나가면서 나한테 말했어요.

만형 울지 말고 십 년만 기다려라! 그럼 성공해서 돌아올게!

만누나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틈을 노려서, 도망치듯이 몰래 집을 떠나가는 오빠들..... 난 훌쩍훌쩍 울면서 손목이 떨어져라 떨어져라 흔들었죠. (**누더기 옷을 다시 입고 무대 가운데로 가서** 세 자식들이 떠나간 방향을 향하여 외친다.) 가는 듯이 돌아들 오소! 기다리는 마음, 미치고 달치겠네!

만누나는 옷을 벗고 위치를 바꾸고, 다시 옷을 입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는 **상황의 전환에 따라 말하는 위치를 바꾸는 것이 옳군요.**

만형, 관객석으로 다가와서 입고 있던 옷을 벗는다.)

만형 어머니를 찾는다니, 그게 뭐니까? 사람이란 그 누구
나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 [㉠]
는 옛날과는 다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권력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으며, 예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내가 찾는 어머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내 꿈은 화가였습니다. 오색
물감으로 하늘의 태양과 구름, 땅의 언덕과 나무들을 아
름답게 그리고 싶었었지요. 그런데 중학교 땐 군인이 되
고 싶었습니다. 물론 졸병이 아니라 수많은 졸병들을 거
느리는 장군이었어요. 고등학생 시절엔 장군보다는 정치
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행정
학을 전공했었는데, 졸업할 무렵 그 모든 것이 막연하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예술가가 되려는
욕구, 군인이 되려는 욕구, 정치가가 되려는 욕구가 같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다시 옷을 입
으며) 어머니를 찾기는 찾아야 할 텐데..... (이정표에 다
가가서 방향판을 바라본다.) 서울로 가는 길, 길에 내 운
명을 맡기고 떠나보자!

**그러나 형은 다시 극중 상황으로 바뀌어도 제자리(세 갈래길)
로 돌아오지 않네요.**

2013년 3월 모의고사 중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형은 다시 원래 말하는 위치
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이 문제의 정답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3번 선지에 심리적 거리에 따라 말하는 위치를 바꾼다는 것도 어
느 정도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옷을 벗고 자신의 이야기
를 직접 관객에게 하는 상황은 극중 상황보다 심리적 거리가 가깝
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보다는 위의 근거로 문제를 푸
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자, 이제 B형 두 번째 오답 문제를 봅시다.

- 먼저 문제를 푸시오. 오답률 28%, 34%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윤리적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의 실천은 동기에서 비롯한다. 이 지점에서 윤리학의 핵심 과제 두 가지가 도출된다. 하나는 도덕 원칙이나 규칙 혹은 윤리적 행위의 가치를 입증하는 정당화 과제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도록 행위를 유인하는 동기화 과제이다. 정당화 과제는 무엇이 정당하며, 왜 정당한가를 따지는 일이며, 동기화 과제는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인도하고 유인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일이다. 이 둘은 윤리학의 쌍두마차인데, 시대에 따라 윤리학이 주력한 과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

근대 이전의 윤리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정당화의 기반을 특정한 형이상학에 두고 있다. 또한 이 시대의 윤리학은 특정한 공동체를 현실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그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한 정치적, 법적인 관행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은 이 같은 전통과 관행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의거한 규범과 윤리를 전제로 한 동기화에 주력하였다.

윤리학이 정당화 과제보다 동기화 과제에 전념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윤리 체계는 관행이나 관습에 안주하면서 교조적인 모습을 띠게 되고, 현상 유지를 위한 보수화, 권위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일반적으로 질서정연한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정당화에 대한 요구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하지만 안정된 공동체가 해체되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에는 그 질서를 유지할 새로운 규범 체계에 대한 정당화 과제가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개인들을 서로 묶어 주고 그들 간의 갈등을 완화해 주던 유대가 점차 약화되고, 상업적인 인간관계가 점차 늘어났다. 그에 따라 ㉠ 개인주의가 우세해짐으로써 정당화 요구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근대 이후의 윤리학이 의무, 옳음, 책무 등에 대한 정당화 과제에 골몰해 온 결과, 윤리적 삶에서 행위의 동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되었다.

어떠한 도덕적 행위도 정당화 측면과 동기화 측면을 갖는 만큼 윤리학은 모든 도덕적 영역에서 정당화와 동기화 과제를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때 모든 덕행은 언제나 정당화의 관점에서 반성되고 성찰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의무는 현실성 있는 동기화의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24. 위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덕적 편향성이 나타나는 원인 분석
 - 각 시대별 윤리학적 논쟁을 중심으로
- ② 가치와 동기의 관계에 대한 비판과 성찰
 - 보편적 윤리학의 한계를 중심으로
- ③ 교조적인 윤리학이 등장한 배경 설명
 - 윤리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을 중심으로
- ④ 윤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
 - 기존 윤리학이 지닌 편향성의 분석을 중심으로
- ⑤ 윤리학과 인간의 삶 사이의 상관관계 고찰
 - 도덕적 가치의 변천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25.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임진왜란 이후 조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유교적 윤리의식은 땅에 떨어졌다. 이에 조선의 임금인 광해군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편찬하여 각 지방에 배부하였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임진왜란 중에 목숨을 바친 사람을 비롯하여 신라, 고려, 조선 시대의 충신, 효자, 열녀의 행적을 수록하고, 그 덕행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광해군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통해 충, 효, 예라는 유교적 이념으로 백성들을 교화하고 혼란스러운 민심을 수습하여 피폐해진 국민 도의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 ① 조선 사회의 윤리 체계는 정당화의 기반을 유교적 이념에 두고 있었군.
- ② 광해군 때는 전통적 권위에 의거한 규범을 전제로 한 백성들의 동기화가 시도되었군.
- ③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간행한 것은 동기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군.
- ④ 충, 효, 예는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한 조선 시대 윤리 체계의 핵심 개념이었군.
- ⑤ 충신, 효자, 열녀의 덕행을 찬양한 것은 새로운 윤리 체계에 대한 정당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군.

비문학 지문을 해석하는 방법과 기본 문제 풀이는 다른 칼럼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번 문제 당 : 4번

24번 문제는 표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 표제를 찾는 문제는 지문의 논제(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논제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이 글의 표제(제목)으로서 가장 옳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문의 논제를 찾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지문의 논제는 첫 단락과 끝 단락에 많이 나오지요. 그 중에서도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 논제로 많이 나옵니다. 첫 단락의 끝문장이 '~에 대해 알아보자, ~은 어떻게 발달하게 되었을까?' 등인 경우 그대로 그 문장이 논제가 됩니다. 이 지문에서 글의 논제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첫 단락과 끝 단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윤리적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의 실천은 동기에서 비롯한다. 이 지점에서 윤리학의 핵심 과제 두 가지가 도출된다. 하나는 도덕 원칙이나 규칙 혹은 윤리적 행위의 가치를 입증하는 정당화 과제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도록 행위를 유인하는 동기화 과제이다. 정당화 과제는 무엇이 정당하며, 왜 정당한가를 따지는 일이며, 동기화 과제는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인도하고 유인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일이다. **이 둘은 윤리학의 쌍둥이마치인데, 시대에 따라 윤리학이 주력한 과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

어떠한 도덕적 행위도 정당화 측면과 동기화 측면을 갖는 만큼 **윤리학은** 모든 도덕적 영역에서 정당화와 동기화 과제를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때 모든 덕행은 언제나 정당화의 관점에서 반성되고 성찰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의무는 현실성 있는 **동기화의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첫 단락과 끝 단락을 보면 4번이 답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단락들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치우쳤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5번 문제 당 : 5번

보기와 함께 제시되는 문제는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학생들이 모두 어려워합니다.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차분하게 풀이방법에 맞춰 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보기 제시형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봅시다.

보기 제시형 문제는 먼저 **보기의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에 제시되는 보기는 당연히 **지문과 연관 있는 내용의 보기**가 출제되지요. 지문과의 연관성은 단순합니다. **지문과 동일한 내용**이냐, 아니면 **반대되는 것**이냐로 나뉩니다. 동일한 경우 지문의 부분적인 내용에 대한 것인지, 전체적인 주제에 대한 것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반대되는 경우는 주로 비판적 사고의 문제나 보기의 입장에서~라는 문제유형으로 주로 출제됩니다.

일단 이 지문은 지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례로 지문의 내용을 설명한 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보기는 지문의 **부분적인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보기에서 윤리적 행위는 유교에 기반을 둔 것이고, 그 유교 자체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 중 **동기화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임진왜란 이후 조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유교적 윤리의식은 땅에 떨어졌다. 이에 조선의 임금인 광해군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편찬하여 각 지방에 배부하였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임진왜란 중에 목숨을 바친 사람을 비롯하여 신라, 고려, 조선 시대의 충신, 효자, 열녀의 행적을 수록하고, 그 덕행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광해군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통해 충, 효, 예라는 유교적 이념으로 백성들을 교화하고 혼란스러운 민심을 수습하여 피폐해진 국민 도의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유교적 이념이라는 윤리적 이념을 실천하게 하는 **동기화를 광해군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로 시도**하였네요.

여기까지 보기를 이해했다면 게임은 끝났습니다. 선지 5번은 이를 정당화 과제를 실천하려 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⑤ **충신, 효자, 열녀의 덕행을 찬양**한 것은 새로운 윤리 체계에 -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편찬

대한 정당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군.
X

결국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보기의 내용이 지문의 어느 내용
과 연관있는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파악한 후에는 내용 일
치에 따라 따져 보기만 하면 끝납니다.